

## 제2주제

# 계룡산 신도내의 풍수지리적 특징

정 종 수

(국립민속박물관)



## 1. 계룡산의 명칭과 신도내

- 계룡산은 서울에서 150km, 광주 140km, 부산 220km, 대전에서는 15km 지점에 위치해 대전·공주·논산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그린다 면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의 명 산 넷을 꼽으면서 오대산과 삼각산, 구월산과 더불어 계룡산을 으뜸 으로 내세웠다.
- 계룡산은 백두산·지리산·금강산·묘향산과 함께 조선의 오악으로 꼽히는 명산으로, 계람산(鷄籃山)·옹산(翁山)·서악(西岳)·중악(中岳)·마목현(麻木峴)·마골산(麻骨山)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 리었다. 삼한시대에는 천태산(天台山)이라 불렸으며, 백제 때에는 계 산(鷄山)·계람산,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른바 신라 오악 중의 서악으 로 제사를 올려 왔다. 계룡은 고려 이후의 명칭으로 그 이전에는 대 체로 옹산·구룡산이라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계룡산의 이름은 대부분 계룡산의 산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 룡산의 계룡(鷄龍)은 주봉인 상봉(천왕봉845m)·연천봉(740m)·삼불 봉(750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마치 닭 벅을 쓴 용의 모양을 닮았다 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특히 상봉과 쌀개봉을 이은 능선의 끝이 닭 의 벅처럼 생겼다. 또 산의 형세가 두 용이 구슬인 여의주를 어르는 형국(雙龍弄珠形)이라 하여 용(龍)자를 쓰고, 멀리 닭이 머리를 쳐들 고 있는 모습과 같고, 산 밑 부분은 용의 비늘처럼 보이며, 계화위룡 (鷄化爲龍)으로 닭이 화하여 용이 되었다는 데서 계룡이라 하였다. 또 산의 형세가 금계포란형(錦鷄抱卵形 :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의 닭 계(鷄)자와 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 : 두 용이 구슬인 여의주를 어르 는 모습)의 용(龍)자를 한데 붙여 계룡산이라 했다 한다. 한편 무학대 사가 신도를 정하기 위해 이태조와 함께 이곳을 둘러보고 “이 산은 한편으로는 금계포란형(錦鷄抱卵形)이요, 또 한편으로는 비룡승천형 (飛龍昇天形)이니 두 주체를 따서 계룡(鷄龍)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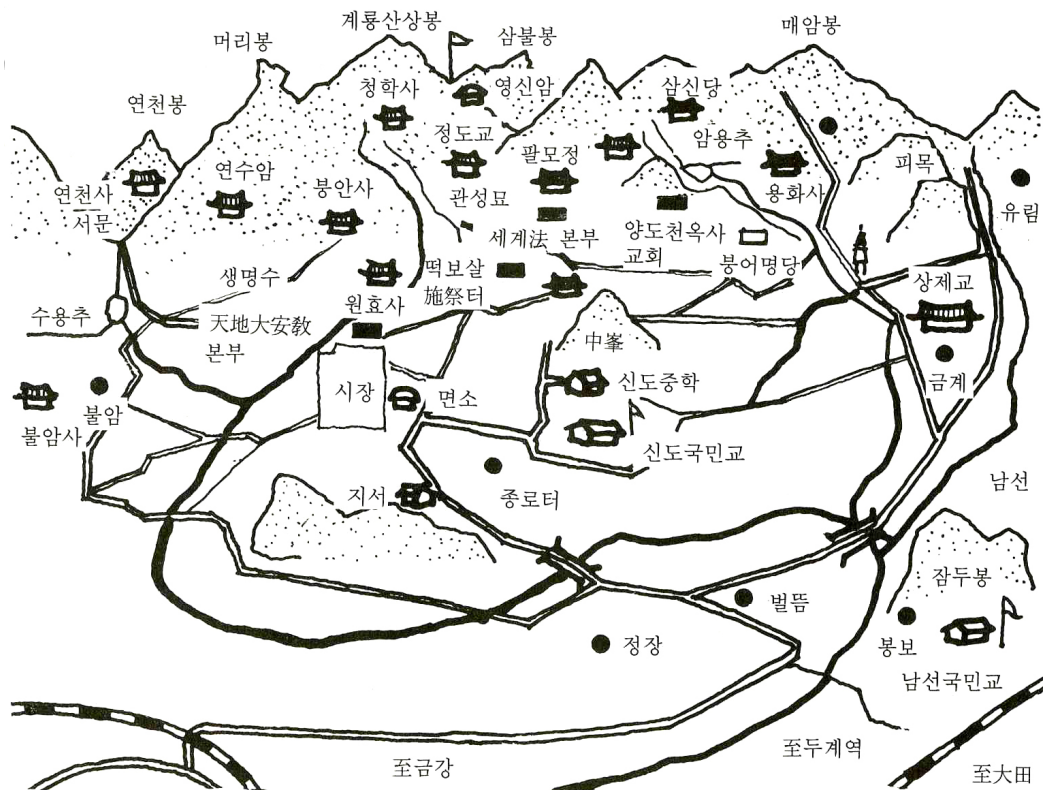
다.”라고 한데서 계룡산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연이은 연봉들이 마치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산이라 하여 구룡산(九龍山),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화산(火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계룡산은 계곡의 물이 쪽빛처럼 푸르다하여 계람산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방에 계곡과 용추(龍湫)가 있다고 하여 용산(龍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 계룡산의 신도안은 논산군 두마면 계룡산 남쪽에 위치하였다. 논산군 두마면은 군의 동부에 위치하였으며 면소재지는 두계리이다. 이곳은 본래 광소부곡 지역인데 조선 태조가 신도를 정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 신도의 바깥지역이 되어 ‘밭거리’로 불리다가 변하여 팔거리, 두마면으로 바뀌었다. 1914년 군면 통폐합 당시 식한면의 30개 동리와 진잠군 남면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두마면이라 하였다.
- 백제 때 신도안은 황등야산군에 속하였고, 신라 때에는 황산군 시진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는 연산군 시진현, 조선에 들어와서는 연산군 식한면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에 논산군 두마면에 귀속되었다. 1931년에는 신도내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일제 때 이 지역 관헌들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신도안의 인구는 1918년 말에 585호, 2,667명이었던 것이 계속된 인구 이주로 1923년 말에는 1,639호에 7,256명으로 5년 사이에 약 3배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그 후 더욱 증가했다. 이는 당시 이곳에 신종교집단들이 생겨나거나 이주해 온 결과로 불과 30년 전 만 해도 각종 신흥종교 50여개가 난립하여 마치 종교박물관을 연상케 하였다.
- 그러나 지금 신도안은 국방의 핵심인 삼군본부가 자리 잡고, 계룡시의 신시가지 건설로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삭막한 콘크리트의 군막사와 아파트로 가득 메워져 불상 사나울 뿐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마치 신도안을 두고 한말 같다. 신도안의 최전성기는



1950년대 초반의 갑오혁명의 환갑이 되는 갑오년의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세계일가공회·천진교 등 200여개가 넘는 교단이 이곳을 무대로 활동했었다 한다. 변창일로에 있던 계룡산 일대의 신흥종교와 무속은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 두 차례에 걸쳐 정화대상지로 묶여 수난을 겪게 된다.

- 특히 1975년 새마을 운동은 계룡산 일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몰고 왔다. 미신 타파의 미명아래 계룡산 곳곳에 설치한 제단과 암자, 치성터 등이 허물어지고 철거당했다. 100여 개의 종교집단 교주가 산림법 위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1975년 8월 16일 충남 강경경찰서와 논산 군청이 비밀리에 작성한 계룡산 내 유사종교집단 지역정화 계획안에 의하면 “신도안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잡교의 은둔으로 유사종교촌화 되었으며, 일제시대 때 천도교인이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한 이후 잡다한 종교가 종교 단체가 전입 정착하게 되었고, 산신에 대한 기도를 빙자한 무속이 성행하였다.



[그림-1] 1973년 계룡산과 신도안과 종교단체

- 1975년도에 한차례 정화대상이 되었던 계룡산 내 신흥종교 및 신도는 그 후 1983년 8월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른바 ‘620사업’에 의해 다시 철거되었다. 사업의 내용과 규모, 목적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술한 억측과 소문, 유언비어 속에서 삼군본부 이전이라는 대사업은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신들의 꽃밭이었던 신도안의 수많은 종파들은 ‘620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신도안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1천 80세대 중 427세대가 대전, 373세대는 인근 논산, 공주 반포면, 계룡면 등으로 이사하는 등 모두 신도안을 떠났다. 이로써 600여년 이란 오랜 기간 수많은 풍수도참설과 정감록신앙의 전설이 담겨지고, 종교 집산지를 이루었던 신도안은 역사의 장으로 묻혀버리었다.

## 2.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징

- 계룡산은 차령산맥 중의 연봉으로, 태백산맥에서 갈려나온 차령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금강의 침식으로 허리가 잘리면서 분리되어 형성된 분구이다. 중부지방에서 유독 우뚝 솟은 이 산은 마치 어느 산맥에도 속하지 않는 외톨이처럼 보인다. 계룡산의 지세를 보면 상봉은 창천에 포효하는 용의 상이다. 상봉에서부터 솟구쳐 솥두리 치다가 천봉만학을 이루며 동북간으로 내뻗친 연천봉·사련봉·삼불봉의 한줄기 맥은 완미(完美)한 남성의 표상을 이루고, 다시 상봉에서 장군봉으로 흘러 내려가 유성 평야에 자취를 감춘 잠룡(潛龍)의 맥은 여성의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곳은 자웅양룡(雌雄兩龍)이 합칠 수 없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태곳적부터 순열의 연모의 정을 바치는 양룡연루지형(兩龍戀淚之形)과 같다고 한다.
- 계룡산은 화채산(火彩山)으로 겹산이 아닌 홑산이라 물이 적고 내가 모두 건천이다. 그러나 비록 계룡산이 홑산이나 주위의 산들이 이 산을 향해 읊조리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명산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

지 많은 술사들은 계룡산의 산세를 풍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수태극산태극형(山太極水太極形)
- 회룡고조형국(回龍顧祖形局)
- 금계포란형(錦鷄抱卵形)
- 쌍룡농주 · 일룡농주형 · 유룡농주형(雙龍弄珠.日龍弄珠形.遊龍弄珠形)
- 비룡승천형 · 비룡봉익형(飛龍昇天形.飛龍鳳翊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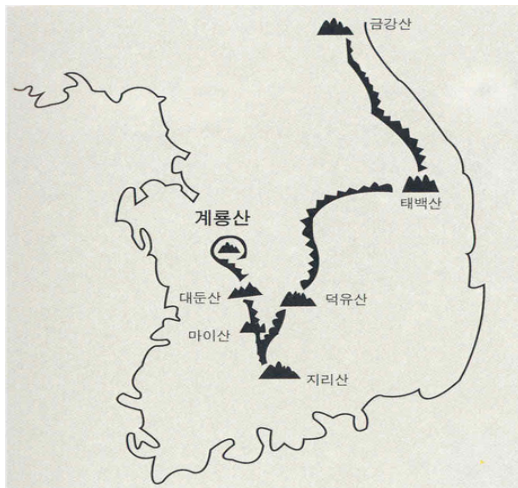
## 1) 산태극 · 수태극 모양의 계룡산

- 계룡산의 산세는 경북 태백산의 한줄기가 풍기 계립령(鷄立嶺)을 거쳐 충북 속리산이 되었고, 또 그 한 맥이 서남으로 한 가지가 내려와 무주 덕유산, 안의 장안산을 이루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남쪽으로 뻗어 지리산을 이루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서남쪽으로 꺾여 경북 팔공산으로 내려갔다. 지리산으로 뻗은 줄기는 다시 북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무주 덕유산-진안 마이산에서 삼백리를 거슬러와 공주 동쪽에 이르러 반달모양(C자형)으로 우회 ‘조상을 돌이켜보는 형세’를 이루었다. 이는 ‘자지리산(自智異山) · 역룡삼백리(逆龍三百里) · 회룡고조(回龍顧祖)’란 말로, 지리산으로부터 출발한 산맥이 거꾸로 북상하여 3백리를 올라가 계룡산에서 다시 동남으로 약간 남하하는 형국으로 되어 자기의 근본을 돌아보는 모습을 뜻한다. 즉 태극(太極), 용세(龍勢)가 머리를 돌려 근원을 돌아보는 고조(顧祖)의 형세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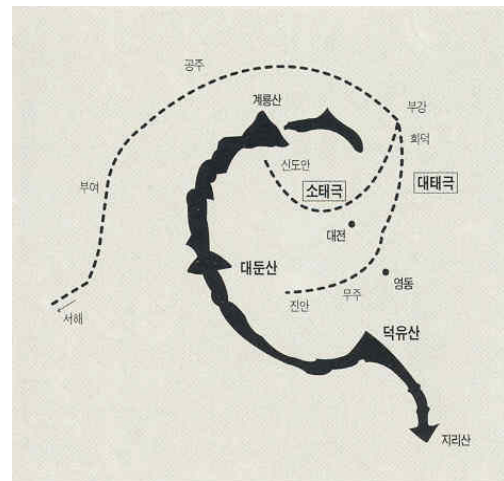


[그림-2] 계룡산 신도내 전경

- 다시 말해 지리산에서 시작된 계룡산은 마이산을 거쳐 한참 거슬러와 논산군 두마면 천마산 자락 양정고개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차게 약진하여 국사봉 - 맨재 - 연천봉 - 계룡산 상봉으로 이어진다. 또 계룡산은 마이산에서 삼백리를 말이 끌고 천마산(두마면 엄사리 앞산)까지 와서 목이 말라 엄사리 양정고개에서 멈추었다 한다. 그래서 마이산을 당나귀 정(鄭)자를 써서 정씨산(鄭氏山)이라 하고, 계룡산도 마이산으로부터 왔다 하여 정씨터라고 하기도 한다.
- 이러한 계룡산의 수태극은 물의 발원지에 의해 크게 대태극(大太極)과 소태극(小太極)으로 나누어진다. 소태극이란 계룡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신도안을 거쳐 동남으로 빠졌다가 다시 동북으로 역류하여 금강과 합류하여 계룡산의 후면으로 흘러 공주 - 부여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계룡산은 산수(山水)가 흠어지면 나쁘고 모여야 운이 좋다는 풍수지리의 이상이 되었다.
- 여기서 소태극의 형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물길은 계룡산 상봉에서 신도안쪽으로 크게 세 갈래로 흘러내려 온다. 즉, 신도안에서 신원사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서문(西門)다리로 가는 솟용추 계곡과 두마면 용동리와 부남리 사이 용화사 앞산 암용추 계곡쪽에서 흐르는 내, 그리고 밀목재 남쪽 계곡에서 흐르는 세 줄기 계곡물이다. 신도안으로 내려온 물줄기는 부남리 궁궐평(宮闕坪)을 양쪽으로 감싸고돌아 정장리 벌뚝(현 삼군 본부 자리로 들어가는 사거리 옆)에서 합쳐져 신도천을 이룬다. 다시 남쪽으로 흘러 두계천을 지나 두마와 대전 경계 지점인 위왕산(지도에는 왕대산으로 표기됨)을 감싸 안고 신도안의 수구막이인 두마면 왕대 무도리(물이 돌아간다 하여 무도리라 함)를 지나 벌곡천과 합류된다. 여기서 다시 유성 쪽으로 동류(東流)하여 갑천을 만들고 갑천 12굽이를 지나 신탄진 부강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이는 계룡산의 물길이 솟용추-암용추-두계천-무도리-갑천-대전-신탄진-부강-금강으로 합류하는 모양이 마치 그림과 같이 작은 태극형을 이루고 있다 하여 소태극이라 붙여진 것이다.



[그림-3] 계룡산의 용맥



[그림-4] 계룡산의 산태극 수태극

- 한편 대태극이란 계룡산을 감싸고 흐르는 물이 금강의 발원지로부터 서해로 큰 태극형을 이루며 흘러가는 모습을 말한다. 먼저 금강의 발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자.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다섯 도에 걸치는 금강과 섬진강의 전 유역을 한눈에 굽어보는 높은 곳, 즉 전북 장수군 수분리 수분현(水分峴)의 뚝봉은 물줄기를 남북으로 갈라놓는다.
- 바로 이곳에서 한쪽은 하동 백리를 흘러가고, 다른 한쪽 물은 역류하여 삼백리를 흘러 공주로 들어간다. 뚝봉은 금강과 섬진강의 강물을 갈라놓으며 여기서 금강이 시작된다. 전북 장수, 무주에서 발원한 금강은 대전의 갑천, 음성의 미호천과 합류한 다음 계룡산을 감싸고 공주, 부여를 지나 서해로 들어간다. 이러한 수세가 큰 태극을 이룬다는 것이다.
- 또한 계룡산은 측으로 돌아 들어옴에 따라 물이 이어지고 [山則左旋積水], 물은 곧 우측으로 들어옴에 이 또한 산을 감싸고 있다 [水則右旋積山] 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산도 ‘乙’ 자형으로 돌고, 물도 ‘乙’ 자로 돌아 산태극 수태극이 된다는 것이다.

○ 산태극의 경로

\* 지리산-덕유산-마이산-대둔산-천호산-천마산-양정고개-계룡산 상봉  
-황적봉-관암산-조개봉-약사봉-위왕산-구봉산

○ 수태극의 경로

\* 대태극 : 장수 · 진안-무주-영동-대청호-금강-신탄진-부강-공주  
-부여-서해

\* 소태극 : 계룡산 솟용추 · 암용추-신도안-두계천-무도리-갑천-  
대전-부강-공주-부여-서해

[표-4] 계룡산의 산태극 수태극 경로

-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계룡산의 ‘산태극 · 수태극 = 길지’란 등식은 조선조 때의 문장가 서거정이 젊었을 때 공주를 다녀가고 쓴 《취원루기》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차현 이남에 산천이 맑은 기운이 충만하고 쌓여서 큰 고을을 이룬 곳에는 공주가 제일이다. 대개 장백산 한 갈래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계림에 이르러서는 원적산이 되고, 서쪽으로 꺾여서 웅진을 만나 움츠려 큰 산악을 이룬 것이 계룡산이다. 물이 용담 · 무주 두 고을에서 근원을 발하여 금산에서 합수 되어 영동 · 옥천 · 청주 세 고을을 지나 공주에 이르러 금강이 되니 그 산천이 아름다움을 알겠도다.

## 2)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회룡고조형

- 회룡고조(回龍顧祖形)란 산태극과 성격상 같은 형세를 의미한 것으로, 용세(龍勢)가 제 몸을 휘감아 제꼬리를 돌아보는 형국 혹은 조상을 돌이켜 보는 형국을 말한다. 계룡산의 산세가 지리산에서 수백리를 역룡하여 올라와 다시 남쪽으로 머리를 돌려 모산인 지리산을 바라보고

선 형국을 가리킨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고려 태조 훈요10조 제 8훈에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에는 산수의 형세가 모두 배주(背走)라고 하였는데, 공주강은 금강으로 이 물은 원류가 호남의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역수로 흘러 공주의 북쪽으로 둘러 나와 금강에 합류했고, 계룡산도 또한 덕유산의 남맥으로서 임실의 마이산을 거쳐 회룡고조가 되어 공(公)자의 형국이 되었다.

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계룡산은 소위 수전현무(水纏玄武 : 물이 북을 돈다는 뜻)의 길세를 이루고, 또 계룡산은 마치 회룡고조의 공자형(公字形)의 땅인 동시에, 신도내의 물은 동남으로 흘러가서 드디어 금강과 합류하여 북류한다는 산태극 수태극을 이루는 대길지라는 것이다.

### 3) 비단 같은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의 금계포란형

- 금계포란형(錦鷄抱卵形)은 계룡산 신도안이 마치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을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 금계와 포옹하는 신도안의 좌우에 작은 원구(圓丘)가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것이 금계포란형의 난구(卵丘)이고, 그 서쪽에 있는 것이 일룡농주(日龍弄珠)의 주구(珠丘)라 한다. ‘금계’·‘일룡’이 모두 살아 있는 것이며 또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대길지라는 것이다.
- 조선초 태조 이성계의 신도 경영 이후에 신도안에는 4문대, 종로터, 대궐터 등의 명칭이 붙여지기도 하였는데, 풍수상으로 서궐터는 금계포란형이고, 동대궐터는 일룡농주형이라 하여 ‘계(鷄)’자 ‘용(龍)’자를 따서 계룡산이라 하였다 한다.
- 이들 외에도 들은 계룡산의 형세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어르는 모습과 같다하여 쌍룡농주·일룡농주·유룡농주형(雙龍弄珠·日龍弄珠形·遊龍弄珠形)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계룡산이 조상의 산(근

본)인 덕유산을 돌이켜보며 승천하는 용의 모습과 같다 하여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비룡봉익형(飛龍鳳翊形)으로 불리기도 한다.

### 3. 계룡산 신도내와 풍수지리적 특징

- 계룡산 남쪽에 위치한 신도안, 지금은 삼군 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해발 180여 미터의 신도안은 구룡성 산지로 둘러 싸여 남쪽만 트인 동서 약 4km, 남북 약 3km로 분지를 이루고 있다. 북쪽엔 주산인 상봉을 비롯하여 연봉들이 좌우로 감싸고 있고 한쪽만 트인 아늑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입구에는 부남리가 자리를 잡아 수문장 역할을 하고, 두마면 왕대리의 무도리는 수구막이가 되어 신도안으로 들어오는 잡귀와 부정을 막아 준다. 그리고 신도안 한복판에는 용의 여의주에 해당되는 야트막한 산봉우리 중봉이 솟아 있다.
- 신도안은 삼군 본부가 자리 잡기 전에는 정장리(丁壯里) · 용동리(龍洞里) · 부남리(夫南里) · 석계리(石溪里) 등 4개 법정 동리와 29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 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도안은 1984년 ‘620사업’으로 수용, 철거, 폐쇄되었다. 먼저 신도안은 신도내 · 신도안 · 대궐터 · 신도(新都) · 팔거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한자 표기로는 신도내(新都內) · 신도안(新都案) · 신도안(神都案) 등으로 분류된다. 신도안(新都案)이란 조선 초기 수도 이전 예정지였다는 사실보다도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장차 출현할 구원자의 새 도읍 예정지라는 미래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진 가운데 쓰여 지고 있다. 신도안(神都案)은 일부 신흥종교 교주 및 신봉자들이 이곳에 장차 지상천국 즉, 신정세계(神政世界)의 수도 예정지라는 의미로 쓰여 진 명칭이다. 신도안(新都案)이란 정감록의 내용처럼, 이곳은 정씨의 도읍지이지 이씨의 도읍지가 아니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씨의 도읍지도 정씨의 도읍지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지기도 한다.



- 현재 향간에 쓰고 있는 신도(新都)는 새 도읍지의 한자 표기이고, 원래 ‘안’은 부정의 뜻인데, 이를 부정의 뜻으로 지명 표기를 하지 않고 신도내(新都內)로 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룡시의 건설로 2천년대의 찬란한 계룡의 시대가 열리어 새로운 한국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속의 중심 도시 안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를 이곳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 1) 계룡산의 여의주 신도안

- 신도내를 둘러싸고 있는 계룡산은 산형이 수체(水體)로서 동서로 병풍 같이 돌려 있고, 산이 북에서 동서로 싸안으니 두 쌍의 봉황이 서로 희롱하는 형상이요, 흙빛이 바래서 백옥이 된 모습이라고 한다. 힘차게 뻗어 내린 주룡이 북으로 가니 한줄기 한줄기가 조각한 황금 같고, 청룡은 겹겹이 감싸서 주봉을 호위하고, 백호는 국사봉의 호랑이가 압전히 엮드린 형상이라 한다. 안쪽을 내려다보면 멀리 장군봉·천쌍봉·함지봉·함박봉 등이 주봉을 향해 하례 하는 형국을 취하고 있으니 군신이 다정하다는 것이다. 수세는 골육수(骨肉水)로 좌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앞으로 모여 양수합금(兩水合襟)을 이루었고, 주위 봉우리들은 사방에서 사신팔장이 둘러 싸 나성을 이루었으며, 삼길육수방의 영봉들이 정기를 내뿜어 신도안을 비추는 형국이라 한다.
- 신도안은 선인봉이 좌청룡이 되고, 국사봉이 우백호에 해당되며, 삼불봉이 현무가 되고, 대둔산이 주작이 된다. 신도안을 둥그렇게 싸고 있는 산들은 역세거나 중후하고 마치 한쪽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산세를 보고 금계포란형, 유룡농주라 하였던 것이다. 즉 좌우측의 머리봉·국사봉·장군봉·형제봉·역적봉 등이 감싸고 있는 신도안의 분지는 용의 여의주로 비견된다.

- 또한 금빛 닭의 양 날개에 싸인 알이 되기도 하고, 금계가 알을 품는 형국을 이룬다. 따라서 풍수지리적으로 계룡산의 신도안은 최대의 길지라 할 수 있다. 속리산에는 살〔肉〕이 있어 누구나 경치로 감탄할 수 있지만 계룡산은 살이라곤 도무지 없는 뼈 바위뿐이라 풍수적으로 기막힌 곳이라 한다. 사실 규모로 보면 신도안의 사방 10리 남짓한 들판이 소쿠리테안 담긴 듯해서 답답하기는 하나 뼈대를 갖춘 면으로 보면 서울 못지않다는 것이다.
-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계룡산은 웅장하기가 오대산에 미치지 못하고 수려하기도 삼각산에 미치지 못하나, 골짜기가 깊숙하게 들어앉은 것이며 국안 서북쪽에 용연이 있어 심히 깊고 넓게 흘러서, 국안에 큰 시내를 이룬 것은 개성이나 한양에 없는 것이라.” 하였다.
- 한학자 김철희는 “산의 생김새가 엄연하고 따듯해서 마치 군자가 예양(禮讓)하는 모양과 같으며, 아름답고도 곱고 덕이 많은佳人(佳人)의 고요하고 한가로운 얼굴과 같으면서도 높고도 커서 호걸스럽고 잘난 선비가 우뚝 서서 건드리지 못한 것만 같다.”고 계룡산을 찬양하였다.
- 한편 이러한 신도안이 나한불공형(羅漢佛供形)을 이루어 조선의 개국공신인 유림들의 반대로 신도안을 읍도로 정했다가 한양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즉 고려의 멸망이 산릉형세 때문이라 믿었던 태조가 당시 유력한 비범인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계룡산을 신도로 정했다가 그로 인해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 이러한 계룡산과 신도안의 풍수적 형세를 마치 한눈에 굽어보는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표현한 ‘계룡산 승지가(鷄龍山 勝地哥)’가 다음과 같이 구전되고 있다.

### 계룡산 승지가

곤륜산 일지맥이 동으로 뻗어 와서  
백두산은 머리되고 지리산은 발이 되야  
삼백리 역룡으로 이사기두(異已起頭)  
칠십팔회 회룡고조 이루었고  
산태극수태극이 되었으니  
장하고 아름답다.  
상봉은 뒤에 서서 형제봉을 앞세우고  
북쪽에 삼불봉은 유성면을 바라보고  
동쪽에 기린봉은 남선리를 품에 앉고  
남쪽에 국사봉은 부남리를 반겨 앉고  
서쪽에 연천봉은 아버지요 하대리는 어머니라  
암용추 솟용추는 제석굴로 통했으니  
선(仙) 불(佛) 유(儒)가 합이로세  
용동과 구포에는 우적(禹跡)이 남아 있고  
한복판에 인경봉은 구룡(九龍)의 여의주라  
양석간(兩石間)에 집은 높고 부남에 못은 깊었으니  
십이대장 조림지(照臨地)에 문만무천(文萬武千) 날 것이니  
이런 승지 또 있는가

- 승지가에 나오는 지명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계룡산의 상봉에서 내려온 제자봉을 속칭 임금봉이라 하고 그 밑을 제왕터라 하는데, 지금도 그곳에는 태조 이성계가 궁궐을 짓다 말은 주춧돌이 남아 있다. 장군봉·국사봉은 신도 성립을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사봉은 유교를 대표하는 봉우리이다. 그리고 연천봉이 돌아서 계룡산이 되었다 하여 연천봉을 계룡산의 부산격(夫山格)이라 한다.

- 부남리(夫南里)는 불암리(佛岩里)로 부르는데, 원래 불내피 즉, 부처가 온 산이라 하여 불교를 상징하고, 유림동(儒林洞)으로 불리는 유림리(流林里)는 유교를 상징하며, 남선리(南仙里)는 도교를 상징한다고 하여, 신도내는 유·불·선이 함께 한 곳이라는 것이다.
- 승지가에 나오는 인경봉은 석계리에 있는 중봉을 가리키며, 구포는 지금 계룡대 본부로 들어가는 사거리길 옆에 있는 내를 가리킨다. 기린봉은 두마와 유성의 경계에 우뚝 솟은 위왕산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린은 고사에 보이는 상상의 동물로서 뿔이 하나만 있어 이 봉우리를 기린봉이라고도 한다. 또 왕을 만드는 산이라 하여 한자로 위왕산(爲王山)으로 쓰기도 한다.
- 이제까지 신도안의 지리에 대하여 가장 잘 기록한 지도는 1929년 7월 25일 이내언(李乃彦)이 제작한 계룡산 지도이다. 이 지도는 현재 충남도청 사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본 지도는 신도안에서 계룡산 상봉을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그린 것인데, 하천은 쥐색 실선으로, 도로는 붉은 색으로 나타냈으며, 동리는 여러 개의 작은 원으로 그려 표시하고, 산·바위·나무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기와집 형태는 와가(瓦家)로, 각 교당은 청색으로 와가를 그려 넣었다. 마을·산·건물 등의 명칭은 모두가 한자로 명기되어 있는데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지명과 1984년 철거되기 전까지 실제 있었던 신도안 마을의 풍수지리적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부 자연 촌락의 동명은 이광삼씨가 펴낸 《신도안 30년》 사진첩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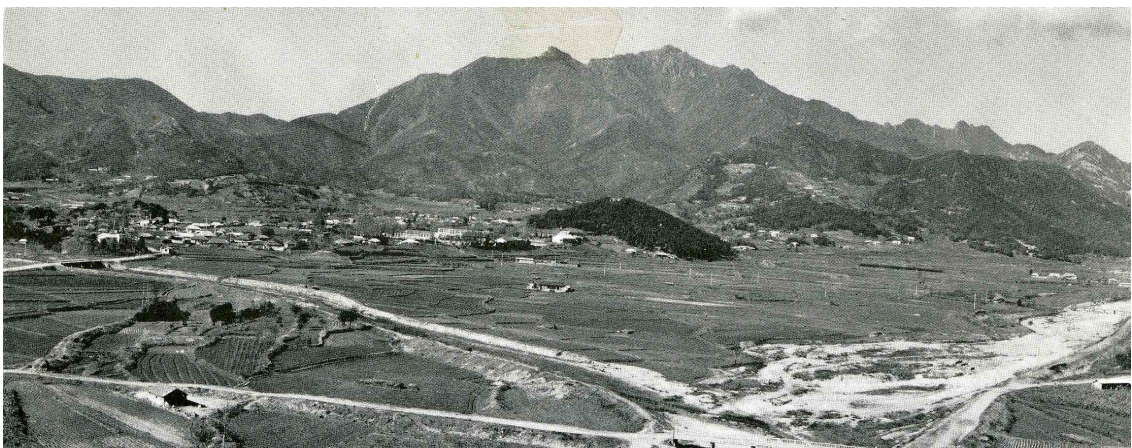
[그림-5] 1924년 제작된 계룡산 신도내 지명이 기록된 지도



## 2) 신도안의 수문장 정장리

- 정장리(丁壯里)는 신도안 입구에 있는 마을로 첫번째 수문 역할을 한다. 정장이란 육귀신(六鬼神)·육정수문(六丁守門)에서 연유되었다. 이를 풀이하면 문을 지키는 여섯 귀신, 여섯 장정이 신도의 입구를 지킨다는 것이다. 고로 신도안은 잡귀 등 부정이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신성 지역임을 암시하고 있다.
- 그리고 정장리를 경운리라 부르기도 한다. 아주 옛날 한 스님이 지나다가 마을 뒷산에 걸친 구름이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춘 다음 여기 농부들에게 말하기를 “구름이 아름답게 걸친 산허리가 있으니 이곳 마을을 경운리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하여 지어진 것이라 한다. 또 “구름이 낮게 깔려서 흐르면 인제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나갔는데 그 후 인제가 나왔다 해서 마을에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온다.

## 3) 계룡산의 여의주 중봉



[그림-6] 계룡산의 여의주 중봉

- 석계리는 냇물과 돌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자연 촌락으로는 고논·골짜산이·장구산·종로터·중봉 등이 있다. 종로터는 석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신도안이 도읍지가 되면 이곳에 종을 달게 한다 하여 종로터라 부른다.
- 중봉은 신도안의 중심 한복판에 위치한 산으로, 여러 신들이 여기서 혼잡을 이루며 제 갈곳을 가는 봉우리라 하여 중봉이라 부른다. 또 신도안에서는 중요한 산이라 중봉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이성계가 계룡산을 신도읍지로 결정한 곳도 바로 중봉이다. 그는 개성에서 수백 리를 달려와 친히 중봉에 올라 신도안의 너른 뜰을 살펴보고 신도읍지로 정하고 즉석에서 신도 공사를 명하였다. 흔히 풍수가들이 말하는 계룡산의 여의주란 바로 이 중봉을 두고 한 말이다. 계룡산 승지가(鷄龍山勝地歌)에서도 인경봉을 구룡의 여의주라 한 것도 바로 중봉을 가리킨 것이다.

#### 4) 신도 대궐터의 주봉 제자봉

- 신도안 뒤의 상봉과 형제봉 앞에 위치한 봉우리로 제(帝)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제자봉((帝子峰)이라 한다. 여기가 대궐터의 주봉이 된다. 참회실에 의하면 상봉 밑에 제자봉(帝字峰)을 제도(帝都)라고 불러왔는데, 나말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와서 이를 보고 말하기를 “중국에 황제가 있는데 어찌하여 소국인 조선에서 또 제도란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이를 마땅히 삭제하라”고 하여 부득이 제(帝)자에서 한 획을 떼어버리고 신(辛)자로 고쳐 불렀다 하여 신도(辛都)라 하였다 한다.

## 5) 세 번 끊겨야 왕이 난다는 양정고개

- 두마면 엄사리에 ‘양정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신도안에서 논산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하였다. 천마산과 계룡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등성으로 천마산의 끝자락이 되는데 고개를 넘으면 바로 두마면 광석리가 나온다. 양정고개는 계룡산의 도참과 풍수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곳이다. 마이산에서 3백 리를 끌고 온 말이 양정고개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달려가 계룡산을 만들었다 한다. 그래서 마이산의 마(馬)자가 당나귀라 하여 마이산을 정(鄭)씨의 터라 하였고, 계룡산이 마이산에서 끌고 왔다 하여 정씨의 산이라고도 한다
- 양정고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백제 말엽 나당 연합군이 침략하였을 때 백제군과 신라군이 크게 싸웠던 곳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도참설에 따르면, 정씨의 도움이 된 후 방씨와 우씨의 두 성씨가 정승이 된다 하여 양정이라 하였고, 성과 관계없이 그 고개 주변의 마을에서 정승이 나온다고 하여 양정고개라 하였다 한다. 또 앞으로 신도안에 도움이 서면 왕관을 놓고 정씨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왕관을 놓고 싸워야 할 고개라고 전하기도 한다.
- 양정고개가 철길로 인해 끊겨 신도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두마면 광석리에 거주하는 김용완씨에 의하면 “옛날 중국 지사가 이곳에 와 양정고개가 세번 끊겨야만 왕도가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삼(三)자를 위에서 아래로 끊으면 임금 왕(王)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정고개가 첫 번째로 끊긴 것은 철길이 이곳을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었을 때이며, 두 번째는 양정고개가 너무 직선적이고 지반이 약한 수렁 지역이라 현재의 향안 뒤쪽으로 철길이 나면서 끊기고, 세 번째는 신도안에 삼군 본부인 계룡대가 들어서면서 엄사리쪽의 개발로 인하여 끊기는 형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번 끊



김으로써 이곳에 새로 건설되는 거대한 계룡시가 바로 읍도라고 한다.

## 6) 신도안의 불교 상징 부남리와 도교 상징 남선리

- 고려 말에 북쪽에 있는 노적봉 중단부에 서광이 비쳐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바위 끝에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가 서광을 내고 있어 이를 신성시하고 돌부처가 계신 곳이라 하여 불암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뒤에 변하여 부남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부남리(夫南里)에는 대궐터 등이 있으며, 신도안에서도 불교를 상징하는 마을로 통한다.
- 지금도 대궐터 [大闕趾] 에는 선초 신도안 신도 공사 때 썼던 주춧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신도안의 장터를 중심으로 하여 서북쪽 일대를 대궐터라 부른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제자봉이 있고 그 밑의 지역 일대를 동대궐, 신도국민학교가 있던 서북쪽 일대를 종로터라 부른다.
- 대궐터는 동대궐터와 서대궐터가 있는데, 즉 상봉에서 내려온 줄기가 대제(大帝:東)가 되고, 장군봉에서 뻗어 내려온 줄기가 소제(小帝 : 西)라 하여 그 밑에 각각 동대궐터와 서대궐터를 잡았다 한다.
- 본래 진잠군 서면 지역으로서 신도안 남쪽에 있어 남산이라 하였다. 유 · 불 · 선 삼교가 합한 곳이 신도내이며 그 남쪽에 위치하여 남선리(南仙里)로 되었다. 남선리는 신도안내에서도 도교를 상징을 상징하는 마을로 전해진다.

## 7) 계룡산의 수구막이 무도리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는 수구(水口)막이가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과 잡귀 등의 침입을 막아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수

호해 준다. 수구막이에는 장승을 세우거나 돌탑을 쌓아 매년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올려 마을의 태평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 신도안의 수문(守門)이 정장리라면, 수구는 무도리가 된다. 신도안에서 흘러나온 물이 두계천을 따라 위왕산 기린봉 자락을 약 1km정도 감싸 앓고 무도리에서 돌아 기성면 원정리에서 갑천과 합쳐지고 흙석리를 지나 유등천과 다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무도리는 물이 돌아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이 바로 신도안의 수구막이가 된다.
- 계룡산은 이 수구막이 때문에 재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때 하천부지를 전담으로 바꾸기 위해 위왕산 자락의 무도리 수구막이를 끊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그 내막은 이렇다.

1960년에 신도안의 수구막이가 되는 위왕산 자락의 무도리 등선을 끊어 1km정도 돌아가는 수로를 바로 돌리면 기존의 하천이 전담으로 바뀌지므로 이 작업을 광석리에 거주하는 최대병씨(73세)와 마을 주민 몇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 능선을 끊어 새로 물길을 직선으로 돌리는데 수로로 들어가는 땅이 30마지 정도 드는데 비해, 물길이 바뀐 하천을 고치면 500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길을 곧게 돌리는 것은 '도투마리로 죽가래 만들기'와 같다.'고 할만큼 작업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드렸다. 최대병씨가 주동이 되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여기에 드는 비용은 대전의 동아학원을 운영 하였던 김정기씨가 대기로 하고 건설회사와 계약까지 맺고 기공식날을 정하였다. 기공식날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재물을 차려놓고 막 제를 올리려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차려놓은 재물을 모두 날려 버렸다. 이에 놀란 주민들은 다시 이곳을 뚫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작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공식 수 일전에 최대병씨는 한 동네에 사는 김용원(75세)씨로부터 그곳은 계룡산의 수구막이이므로 건드리면 좋지 않으니 그 일에서 빠져 나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최씨는 이 사람이 남 돈버는 것 썸이 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단지 꺼림칙하여 기공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최대 병씨는 그때 만일 수구막이가 되는 물질을 뚫었더라면 아마 신도안이 무너져 천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회고하며 자기에게 작업 중지를 말해 준 김용원씨에게 고마워하고 있다.”한다.

- 신도안의 수구막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와 서유구가 《임원십육지》에서 논한 수구론(水口論)과 상당히 상접함을 느끼게 한다. 이중환에 의하면,

“물이 흘러 모아 나가는 어구를 수구라 하는데, 지형상 그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수구를 논함에는 둔전(屯田)할 수 있고 방어하는데 편리한 천연적 요새를 취함이지만, 물은 지형의 변화에 연유되기에 장풍득수(藏風得水)를 고려한 자연환경을 찾기 위함도 있다. 수구가 영성하고 널따라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밭이 만이랑 되고, 넓은 집이 천간이 있어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지므로, 수구가 꼭 닫힌 듯 하고 그 안에 들판이 펼쳐져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서유구도 수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수구에 둥그런 흙더미로 된 산을 나성토(羅星土)라 하며, 그것이 돌보다 못하지만 만산에 대적할 수 있으며, 기기한 모양의 돌, 즉 세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머리를 위로 향해야 하고 꼬리를 아래로 내려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있음이 더욱 좋다는 것이다”.

- 이처럼 수로는 산맥의 조향과 음양 이치에 합치되어야 하겠으며, 꾸불꾸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좋지, 반대로 일직선으로 활을 쏘듯이 흘러들어 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 꾸불꾸불한 흐름은 바로 물이 유유히 길게 흐른다는 지형적 조건으로 홍수를 막기 위함이며 수로와 산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좋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룡산 신도안의 수구막이는 이러한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라 할 수 있다.

## 4. 태조 이성계의 계룡산 신도 건설

### 1) 태조 이성계의 신도 공사와 중지이유

- 태조는 1392년 7월 17일 개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송도는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망국의 터”라는 참설에 사로잡혀 천도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후보지 하나가 바로 계룡산이다. 그는 국토 천도에 대하여는 매우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왕위에 오른지 1개월도 안되어 천도설을 유포하여 후보지를 물색토록 하였던 것이다. 나라를 세우면 먼저 국호를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일차적인 급선무라 할진데 태조는 건도 문제를 1차적인 것으로 여긴 것 같다. 즉 국호를 ‘조선’이라 고친 것은 태조 즉위 2년 2월로 그 이전은 국호를 당분간 고려라 칭한 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그러면 태조는 어떠한 연유로 수도를 급하게 옮기려한 것일까. 조선 초 천도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계룡산이 최초의 후보지로 여겨 왔는데, 실은 한양이 먼저 거론되었다. 태조는 1392년 8월13일 도평의사사에게 한양으로 도읍 이전을 명하였으며, 이를 뒤에는 삼사 우야복 이염을 한양에 보내 궁실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태조는 정당문학 권중화를 경기·충청·경상·전라도 방면에 보내어 왕실안태(王室安胎)의 길지를 조사토록 하였다.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 권중화는 전라도 진동현에서 태를 묻을 길지를 찾고 돌아오는 길에 계룡산에 들렀다가 산수가 뛰어남을 보고 계룡산 도읍지도(都邑地圖)를 그려 태조에게 바쳤다.
- 그렇잖아도 천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태조는 권중화의 계룡산 도읍도지를 받고 “1393년 2월 18일에 계룡산으로 거동할 것이니 대성(臺星)에서 각기 한 사람씩과 의흥친군(義興親軍)이 시종토록 하라”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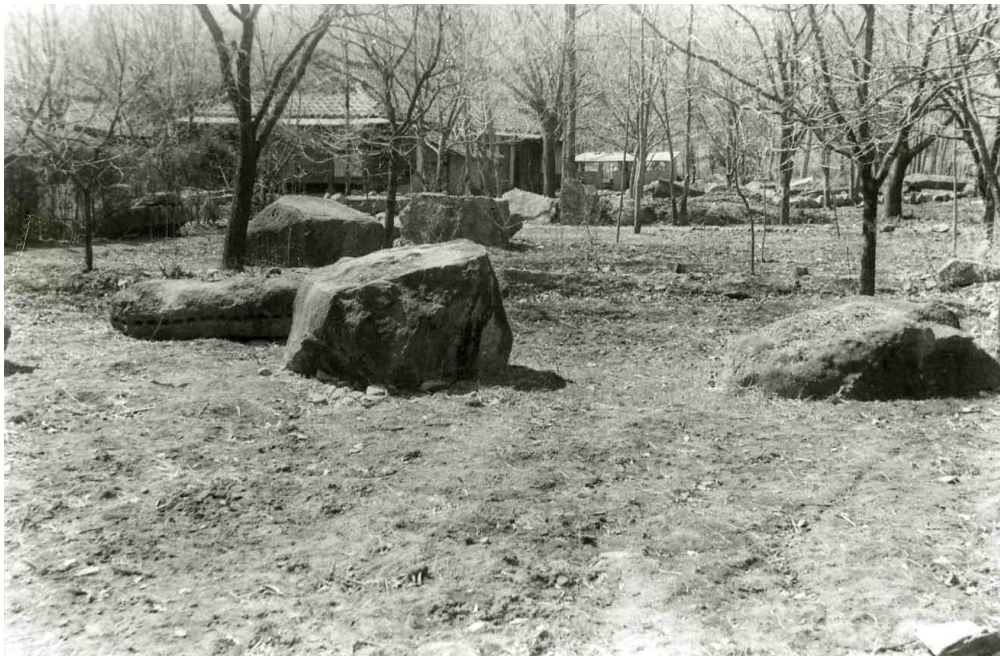
을 내렸다. 다음날인 19일에 태조는 영삼사사(領三司事) 안종원·우시중 김사형·참찬문하부사 이지란·판중추원사 남은 등을 대동하고 계룡산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을 걸려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도착한 태조는 왕사 무학대사를 청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태조 일행은 개성을 출발한지 10일만에 계룡산에 도착하였다.

- 계룡산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친히 함께 동행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계룡산 산수(山水)의 형세를 관찰하였다. 태조는 삼사 우야복인 성석린·상의문하부사 김주·정당문학 이명에게는 조운(漕運)의 좋고 나쁨과 노정(露呈)의 험난하고 평탄한 것을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의안백(義安伯) 이화와 남은에게는 성곽을 축조할 지세를 살피게 하고, 김주와 동지중추 박영충·전 밀직(密直) 최철석에게는 이곳에 남아 새도읍 건설을 감독토록 하였다.
- 이처럼 태조는 5일 동안 계룡산에 머물면서 친히 신도 중앙의 고부(高阜)에 올라 새 도읍지가 될 주위의 형세를 살펴보고 대단히 마음에 들었던지 신도 공사를 지시하고 개경을 출발한지 37일 만인 3월 27일에 환궁하였다. 계룡산의 신도 공사는 공역(工役)과 공장(工匠)의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착착 진척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읍지의 영역으로 경기 도내(畿內)에 주현·향소·부곡 등 81개를 정하였고, 동년 9월 4일에는 경상도·전라도 안렴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역부를 모집하여 신도공사에 투입토록 하였다. 또 11월 19일에는 승도를 모집하여 역사(役事)에 참여케 하였다.
- 이와 같이 신도의 공사는 거의 1년동안 차질 없이 계속되었는데, 그해 12월 11일 돌연 대장군 심효생을 계룡산에 보내어 신도 사업을 정지시켰다. 계룡산의 건도 중지는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 하륜의 다음과 같은 진언에서 비롯되었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인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서면·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일찍이 신이 아버지

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련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아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으로 흘러간다 합니다.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胡舜臣)이 이른 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패가 곧 닳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는 적당치 못합니다.”

- 이같은 하륜의 주청에 따라 태조는 급히 명하여 글을 바치게 하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판중추원사 남은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이를 참고케 하는 한편, 고려 왕조의 여러 산능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과연 조사해 보았더니 하륜이 제기한 것처럼 길흉이 모두 맞아 계룡산의 신도 사업을 중지토록 하였다. 태조는 신도 경영이 중지되자 다시 고려 왕조의 서운관에 저장된 비록문서(秘錄文書)를 모두 하윤에게 주어서 고열(考閱)토록 하고 다시 천도할 땅을 물색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그림-7] 태조 이성계가 신도공사 시 썼던 주춧돌

- 태조는 왜 1년씩이나 진척시킨 신도 공사 갑자기 그만두게 하였을까?

첫째, 계룡산의 위치가 남방에 치우쳐 동서북 삼면과 너무 떨어져 있어 도리(道里)의 균형을 얻지 못한 곳이고, 가까운 곳에 조운과 용수가 불편하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그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점이다.

- 둘째, 풍수상으로 계룡산은, 산은 건방(乾方: 서북방)으로부터 오고, 물은 손방(巽方: 동남방)으로 흘러가는 곳으로서, 이는 송나라의 풍수가 호순신이 가리킨 ‘수파장생 쇠파입지(水破長生 衰敗立地)’의 땅과 일치하므로, 계룡산은 오래 못가 망할 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룡산은 풍수적 결함을 갖고 있어 곧 망할 땅인데 굳이 이런 곳에 도읍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도 공사 중지시켰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도 공사 중단케 한 것은 사실상 조운과 같은 실질적인 도읍조건보다는 두 번째 이유인 풍수상의 결함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 그렇다면 계룡산 신도 공사 중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소위 호순신의 ‘수파장생 쇠파입지’란 무슨 뜻인가? 즉 지리를 인간에 비유하면 산(山)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수(水)는 사람의 혈맥과 같은 것이어서, 혈맥이 태내에서 순환하여 적당한 신진대사를 얻으면 건강을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병사를 면치 못한다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수리(水理)의 이(理)도 마찬가지로여서 수(水)의 내거(內去)는 오산(五山)의 길흉정방(吉凶定方)과 서로 합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길방(吉方)에서 와서 흉방(凶方)으로 흘러가면 생생(生生)의 기를 산출하여 길복한 터를 이룰 수 있지만, 거꾸로 흉방에서 흘러와 길방으로 흘러가면 생왕(生旺) 기가 파하여 흉복의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수법(水法)의 대원칙에서는 들어오는 곳이 득(得)으로서 길방이 되어야 하고, 나가는 곳, 즉 파(破)가 흉방이 되어야 [大率欲水各自吉方來凶方去] 만 좋다는 것이다.
- 그런데 계룡산은 산자건래(山自乾來), 즉 건방에서 온 건(乾)은 금산(金山)이 되며, 좌선국에서 진손사방(辰巽巳方: 동남방)이 탐랑성(貪狼

星:養生)으로 길방이되고, 신경유방(申庚酉方: 西方)이 무곡성(武曲星 : 官旺)으로 길방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룡산의 신도내 물은 진손 사방 신경유방(辰巽巳方 申庚酉方)의 이 두 길방(吉方)중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길방위가 되어 기를 깨트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계룡산은 호순신이 말한 ‘수파장생(水破長生)’으로 ‘쇠패입지(衰敗立至)’가 된다는 것이다.

- 실질적으로도 명당 주위의 산들이 최고봉과 수구인 파방(破方)인 건방(乾方)과 손방(巽方)식으로 180도의 정반대 되는 국세를 취하는 경우, 명당을 번쩍 들어 파방으로 쏟아 붓는 듯한 환경지각적인 양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아서도 느낄 수 없지만, 장기간 거주하면서 이미지를 인식함에 이르러서는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신사 중 계룡산을 정점으로 치개봉, 민목재 쪽의 청룡산세와 맨재, 향적산 쪽의 백호산세, 현무가 합하여 그 계곡의 물을 모두 혈에 해당되는 명당, 즉 신도내로 쏟아 부어 명당을 휩쓸어 봉보 협곡 쪽으로 몰리게 하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또한 계룡산은 웅장하기가 오관산에 미치지 못하고 수려함도 삼각산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면에는 조수가 적고 다만 금강 한 줄기가 산을 둘러 돌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릇 회룡고조의 땅은 본래 역량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릉을 보더라도 언제나 한족의 패자 노릇만 하는 고장이 되어, 비록 명태조가 금릉에서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세대가 바뀌자 도읍을 옮기는 운을 면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룡산 신도내는 한양과 개경에 비교할 때 기세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계룡산 신도내는 면적으로 볼 때 개경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변산세의 영향으로 오히려 넓게 보이는 지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는 곳이다. 공주군 계룡면 경천리의 불당마을에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성계가 산신령에게 “개성 땅은 좁아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고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다보이는



여기를 택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 예컨대 개경은 588m의 송악산을 주봉으로 좌우에 170~200m 급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 비하여, 신도내는 828m의 계룡산 상봉을 주봉으로 하여 치개봉(650m)·향적산(575m) 등이 주봉과 연계되어 둘러싼 분지이기 때문에 같은 분지의 면적일 경우 신도내가 훨씬 더 넓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흔히 착시 현상이라고 한다.

## 2) 수도를 개성에서 계룡산으로 옮기려고 한 동기

- 도읍지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끄는 중심지이다. 그 중요성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듯 한 나라의 국도 천도는 예나 지금이나 대사 중의 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계기를 통해서만 그 논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논의된다 하더라도 천도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만일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게 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란 측면을 도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은 국가 경영의 큰 틀과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과거라 해서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정치, 사상적으로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았으리라.
-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간 논의되었던 충남 연기로의 행정 수도 이전문제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왕조가 바뀌면 국호를 개칭하거나 국도를 천도하는 것은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권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삼국을 통일한 고려도 마찬가지였고, 고려를 대신한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려 왕건이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를 버

리고 신도를 송도로 정한 것과 같이 조선도 역세(易世) 천도의 선례를 위한 것이다. 이성계가국도를 다른 새로운 곳으로 정하려고 한 것은 전대 왕조의 구도에서 선정을 펴느니보다 민심을 혁신하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는 하나의 술책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만일 한양 천도의 동기가 신도를 열어 민심을 새롭게 한다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구대 왕조의 군신들에 웅립되어 구도 개경에서 즉위한 태조로선 서서히 길지를 정하여 신도를 건설한 후에 천도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태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천도의 의지를 공포하고, 몸소 삼 년 동안 분주히 각지를 순시하며 신도가 될만한 곳을 물색했다. 또한 여러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일방적으로 계룡산이나 한양으로 신도를 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태조로선 그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 태조는 왕위에 오른 지 채 1개월도 안 되어 천도설을 유포하였다. 그의 천도에 대한 조급성은 국호의 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라를 새로 세우면 국호를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호를 고치지 않고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조선이라고 친 것은 태조 즉위 후 2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 그러면 태조는 왜 그리 성급하게 천도를 감행하려 했을까? 단순히 왕조 경질(更迭)에 따른 정치적 일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 천도를 강행했다고 보기에선 뭔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는 그 원인을 풍수도참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경의 지기쇠왕설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성의 지기쇠왕설은 고려 중기 이후 끊임없이 유포되어 온 이야기였다.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천도는 조선조 개국 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한마디로 개성은 풍수지리상 불길한 땅이라는 것이다.
- 각종 풍수도참서와 당시의 풍수가들의 입을 통해 “송도는 고려 480

년의 도읍지다.”, “송도의 지기는 이미 쇠하였다.” 라는 말들이 고려 말과 조선 건국을 전후해서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특히 “송도는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망국의 터이다.” 라는 참설은 신하로서 임금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자신도 언젠가 다시 신하에 의해 폐왕의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망국의 터를 벗어나고 싶었으리라 여겨진다.

- 이러한 참설에 사로잡힌 이 태조는 즉위한 지 채 한 달도 못 된 1392년 8월 13일, 도평의사사에게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라는 명을 내리고, 이틀 후인 15일에는 이염을 한양으로 보내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 천도가 얼마나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는 그 해 9월 3일에 배극렴과 조준 등이 태조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1392년 9월 3일자 《태조실록》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한양의 궁궐이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해 호종(扈從)하는 사람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갑니다. 날씨는 점차 추워지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사를 배치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소서.” (《태조실록》 태조 1년, 9월 3일조)

- 또, 같은 해 9월 30일 태조는 서운관의 관원을 불러 종묘를 지을 땅을 물었다. 서운관의 관원은 “성 안에는 좋은 땅이 없고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던 옛터가 가장 좋다.” 라고 대답하였다. 태조는 못마땅해 하면서 다시 “망한 나라의 옛터를 어찌 다시 쓰겠는가.” 하고 묻자, 옆에 있던 판중추원사 남은이 “옛 궁궐을 헐어 버리고 옛 땅을 파내어 새 종묘를 고쳐 짓는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며 개성을 고집하였다.
-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태조는 계룡산 신도의 지형을 살

피기 위해 개경을 출발하였다. 출발 한 지 열흘 만에 용인 근처에서 목계 되었다. 그런데 1393년 2월 1일, 어가가 막 출발하려는데 개경으로부터 왕비(계비 강씨)가 아프고 평주와 봉주 등지에서 초적이 일어났다는 급보가 날아왔다. 이 같은 급보에 접한 태조는 오히려 불쾌히 여기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천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 대족들이 함께 싫어하는 바이므로 구실로 삼아 이를 중지시키려 하는 것이다. 재상은 송경에 오랫동안 살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도읍을 옮기는 일이 어찌 그들의 본뜻이겠는가.” 그러면서 태조는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 역시 하고 싶지 않겠지만, 옛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지금 내가 계룡산을 급히 보고자 하는 것은, 내 대에 새 도읍을 정하지 않으면 후사인 적자가 비록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도읍을 옮기려고 하더라도 대신이 옮지 않다고 저지시킨다면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우리는 태조 이성계가 구도 개경을 얼마나 떠나고 싶어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조가 구도에 대한 신하와 백성들의 애착과 천도 상조론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천도를 단행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 열쇠를 개경의 지기쇠왕설에서 찾을 수 있다.
- 이 지기쇠왕설은 이미 고려 숙종 때부터 유포되어 온 참설이었다. 공민왕 6년 7월에 서운관이 『도선밀기(道洗密記)』에 지기쇠왕설이 있으니 한양으로 거동하여 개성의 지덕(地德)을 쉬게 하라고 권한 적이 있고, 동왕(同王) 16년에는 신돈이 『도선기』의 송도쇠기설을 들어 평양으로 천도할 것을 왕에게 권하기도 했다. 이렇듯 고려 왕실은 개성의 지기쇠왕설로 달리 도읍을 건영하거나 또는 개경의 지덕을 쉬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도를 옮기는 문제 등으로 부심하였다.
-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의 뇌리에는 개성의 지기쇠왕설이 항상 맴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는 “지덕이 쇠미한 개성을 순시하고 신도로

천행하지 않아 고려의 왕업이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덕이 없는 개성에 하루라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태조였기에 즉위하자마자 천도 사업에 매달렸던 것이다.

- 태조의 지기쇠왕설에 대한 믿음과 구도 개성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정종이 한양에서 구도 개성으로 천도한 지 5년 만에 태조와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환도한다. 당시 『태종실록』은 한양 재천도를 위한 태종과 태조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태상왕께서 새 도읍을 창건하시었으니, 이것은 이씨의 바꿀 수 없는 정도(定都)이다. 우리 정종께서 송도로 옮겨오신 뒤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지금 7년이나 되어 아버님이 시작하고 아들이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어나가는 도리에 어긋났으니, 과인의 죄이다. 지난 가을에 송도에 음려(陰慮)의 재앙이 있기 때문에 신도[漢陽]의 종묘에 가서 점을 쳤더니 이미 길한 것을 얻었고, 금년 봄에 또 가서 궁궐을 수리하는 것을 보았더니 공사가 거의 끝났기에 옮겨갈 계책이 정해졌다. 백성과 신하가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살고 있는 땅을 편안하게 여기고, 딴 곳으로 옮기기 싫어하는 뜻이다.”

- 또한 태종은 구도를 그리워하고 옮기기를 꺼리거나 흉년을 구실로 삼는 자는 모두 천도 반대론자로 몰아붙이고, 한편 음양가의 말을 빌려 구도 개성은 지기가 쇠하여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망국의 터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태종은 아버지가 이룩한 천도를 자식 대에 와서 바꿀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음양가가 말하기를, ‘송도는 군신의 분별이 없어지는 땅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흉년이 들어서 옮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 이렇듯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기로 마음을 굳힌 태종은 다음 날인 8월 11일에 아버지 태조에게 그 뜻을 고하자, 태조는 “음양설이 비록 믿을 것은 못 되나 왕씨 5백년 뒤에 이씨가 나라를 얻어서 한경에 도읍

한다 하였는데, 우리 가문이 과연 그 설에 응하였으니 어찌 허황된 말이라. 또, 우리 집이 미리부터 나라를 얻고자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시켜서 그리 한 것이다.” 라며, 한성으로의 천도는 하늘의 뜻임을 강조했다.

- 또한 계룡산의 신도 공사가 하륜의 건의로 중지되자 1차 신도 후보지로 거론된 무악을 친히 올라가 본 후 군신을 모아 놓고 그 찬반 양부를 물었을 때, 서운관의 지관 유한우가 개성이 가장 좋다고 하자 “너는 송도의 지기가 쇠하였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느냐”고 질책한 내용을 보면, 태조가 얼마나 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한양의 왕도 공사의 시작을 신에게 알리는 고유문(告由文)에서 ‘송도의 터는 지기가 오래 되어 쇠해 가고, 화산의 남쪽은 지세가 좋고 모든 술법에 맞으니 이곳에 나가서 새 도읍을 정하라’고 한데서도 태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이같은 개성의 지기쇠왕설 이외에도 태조 이성계가 천도를 서두른 또 다른 까닭은 혁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된 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영·정몽주 같이 개인적으로는 친구이자 공적으로는 고려의 훈신인 이들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살해한 일들이 태조에게는 큰 부담이 됐던 듯하다. 특히 태종의 교사로 조영무에 의해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되었을 때 태조는 병석의 몸을 일으켜 “우리 가문은 본디 충효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내가 감히 이렇게 불효하니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며 태종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같은 기록이 이성계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성계로선 빨리 잊고 싶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억지 누명을 씌워 우왕·창왕을 폐출하여 살해한 일도 개성에 있는 한 쉽게 잊지 못했으리라는 점이다. 태조 이성계 일파의 압박으로 고려 왕씨들은 왕(王)씨 성을 고쳐 마(馬)씨가 되기도 하고, ‘왕(王)’ 자에 인(人) 자를 씌워 전(全)씨가 되었다. 또 ‘왕(王)’ 자에 점 하나를 붙여 옥(玉) 씨가 되거나 전(田)씨로 성을 바꾸어 왕씨 성을 감추며 멸족의 화를 면하고자 했다.
- 또한 태조는 자기와 가장 절친했던 이색의 두 아들 종학, 종덕이 전조에서 다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는데, 혁명 후 두 마음을 먹지 않는다 하여 모두 곤장을 쳐 죽였다. 비록 이 일은 태조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불찰로 여겨 죄책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 5. 나오는 말

- 계룡산은 무주 덕유산-진안 마이산에서 거꾸로 북상하여 삼백리를 거슬러 와 공주 동쪽에 이르러 반달 모양으로 우회 ‘조상을 돌이켜보는 형세’를 이루었다. 또한 장수에서 발원 역류한 금강의 본류가 계룡산의 물줄기와 합류하여 신도안을 중심 축으로 산천을 감싸고 흐르는데, 마치 산과 물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이라 하여 풍수에서는 이를 산태극·수태극이라 하여 예로부터 길지로 여겨 왔다.
- 신도안은 주위의 봉우리들이 사방에서 사신팔장(四神八將)이 둘러싸고 나성을 이루며,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의 영봉들이 정기를 내뿜어 신도안을 비추는 형국을 이루어 계룡산의 여의주가 되었다. 이같은 계룡산의 국도풍수 도참설과 함께 임란 이후 지속된 전란과 사회 혼란에서 몸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이들을 이곳으로 불러 들여 한 때 한국 신흥종교의 성지로서 그 이름을 날렸다. 크고 작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남북 4km, 동서 3기로 길이의 분지 계룡산의 신도안은 자주 고려의 수도 개성과 비교되었다. 거기에 태조 2년 2월 왕실의 태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권중화가 받친 계룡산 새 도읍지 형세도에 의해 왕도로 지정되어 1년에 걸쳐 신도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계룡산을 풍수지리적으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 후 풍수상 길지로 인식되고 조선이 한양에 도읍하여 500년의 역사가 끝나고 정감록에 차기 도읍예정지로 기록되는데다, 여기에 각종 참설류가 가미되어 신비의 산, 영험이 깃들어 있는 산으로 널리 선전되어 계룡산은 더욱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신도공사를 무슨 이유로 갑자기 중단하게 한 것일까. 왕조가 바뀌면 국호를 개칭하거나 국도를 천도하는 것은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권에 있어서는 흔히 보는 사례의 하나이다. 물



론 새 왕조를 건립하고 신도를 열어 민심을 새롭게 한다는 당위성도 있었지만 태조 이성계가 개성을 급히 떠나 신도 공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려 숙종 때부터 유폐되었던 개성의 지기쇠왕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개성은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땅이다”라는 지리도참설이 널리 회자되었다. 지덕이 없는 개성에 하루라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태조로서는 계룡산도 개성처럼 풍수상으로 결함을 갖고 있어 곧 망할 땅이라는 지적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태조가 신도 공사를 중단하게 한 것은 사실 한나라의 국도는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거나 운송 같은 실질적인 당위성보다는 풍수지리적 결함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계룡산 신도안이 산태극 수태극의 산세를 갖춘 풍수지리적으로 대길지라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찍이 서거정과 성호가 말했듯이 계룡산은 금강과 함께 그 산천이 매우 아름답고, 공(公)자 형국을 지닌 풍수적으로 길지라고 언급한 사실과 임진, 병자호란과 같은 나라에 큰 병란으로 국가의 위란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로 떠오르며, 십승지로 계룡산이 끼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참고문헌>

- 《삼국유사》  
《태조실록》  
이중환 《택리지》  
서유구, 《임원십육지》  
계룡출장소, 《신도고사》, 1991.  
김득황, 《한국사상사》, 남산당, 1958.  
동아일보, 《계룡산기》, 1924, 12. 1 - 1954, 1, 31.  
신외철 외, 〈정감록〉, 《한국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90.  
안춘근, 《정감록 집성》, 아세아문화사.  
이광삼, 《신도안 30년 사진》, 삼원사진인쇄사, 1991  
이능화, 〈정감록〉 《조선기독교급외교사》 하편, 창문사. 1928.  
임경일, 〈정감록〉 《신천지》, 제 1권 6호.  
한국일보, 《실화계룡산》, 1965. 4.  
정다운, 《정감록》, 밀알, 1986.  
충청남도, 《계룡산지》, 1994  
정종수, 《계룡산》, 대원사, 1996.